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한유*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1. 15(일) ~ 2. 5(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내가 파견된 대학교는 밴쿠버 41번가에 위치해있는 "Langara College"이다. 캐나다에서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버스나 스카이트레인을 타면 학생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대학교 안에는 팀홀튼, 스타벅스, 스튜던츠 유니온의 카페 등 교내 카페도 갖추었고 그 외 건물과 시설 모두 좋았다. 시끄럽고 혼잡한 느낌은 없어서 수업하기도 쾌적했다.
수업	이번에 함께 간 15명 인원은 분반으로 갈리는 일 없이, 모두 같은 반에서 수업을 받았다. 일단 한 분의 담당 선생님이 있었고,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수업은 하나의 바인더를 나눠주는데 그 바인더 속 학습지들을 공부한다. 처음은 타지에 온 우리가 꼭 알아야할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여 캐나다의 역사, 밴쿠버의 여행지, 공손한 표현 배우기, 그룹별로 투어계획 짜보고 발표하기, 이야기 만들어보기 등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영어로 수업한다고 해서 막 어렵지는 않고 선생님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주시고 말할 기회를 많이 주셔서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된다. 과제는 거의 매일 주시지만 정말 10분~20분 내로 끝낼 수 있을 정도로 부담이 없다. 학습지 채워오기, 홈스테이 가족들과의 인터뷰 라든가 주제를 주면 10줄 내외의 저널 써오기 등이다. 수업에서든가 과제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Activity	MOV(Museum of Vancouver), Granville island, Vancouver Aquarium에서는 그 곳을 견학하며 학습지를 채우는 활동을 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Curling, Snow shoeing를 할 때는 꼭 편하고도 따뜻한 복장을 입어야한다. 그리고 부츠를 신고 핫팩까지 챙긴다면 훨씬 좋을 것이다. 모든 활동에 추가비용은 들지 않는다. 대신 Snow shoeing을 할 때 보호대나 신발등 장비를 대여 하는 게 있는데 굳이 추가로 대여하지 않고 복장

	과 부츠를 잘 갖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 반에서도 아무도 빌리지 않았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겨울이라서 눈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비가 많이 왔다. 밴쿠버는 레인쿠버라고 불릴 정도라고 한다. 날씨가 맑다고 해도 하도 번덕스러워서 언제 비가 올지 모르므로 무조건 가방에 우산 넣고 다녀야한다.
안전	밤 늦게 혼자 돌아다니지만 않는다면 안전할 것이다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p> <p>홈스테이는 전반적으로 좋았다. 방도 크고 개인 방에 화장실까지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다. 그리고 홈스테이 가족들이 말하는 룰 같은 것만 잘 지키면 문제 없다. 내 홈스테이에서는 세탁기 사용은 1주일에 1번만 사용가능했고, 가능하면 10시 이후로는 샤워하지 않는 것이었다. 가족들 모두 친절하게 해주시고 과제도 흔쾌히 도와주셨다.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정말 친절하시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에서 아침식사는 시리얼이나 와플을 먹었고, 점심은 홈스테이에서 싸주신다. 내 홈스테이 맘은 매일 같은 샌드위치만 싸주셨는데, 솔직히 나는 샌드위치만 매일 먹는 것이 적응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공손한 표현을 이용하여 홈스테이 맘께 샌드위치 말고도 다른 면종류나 밥도 번갈아서 싸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하였다. 맘은 흔쾌히 말해줘서 고맙다하시며 2주차부터는 일주일에 3가지 종류를 번갈아가며 런치박스를 챙겨주셨다. 그리고 저녁은 거~의 같이 간 학생들과 밴쿠버를 돌아다니며 놀다가 외부식당을 이용하였다. 멀티컬처인 밴쿠버의 문화 덕분에 멕시코, 일본, 중국, 이탈리아,... 등 여러 종류의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물론 한국음식이 그리기 때문에 핫반이나 컵라면을 4~5개는 챙겨가는 것이 좋다. 나 역시 런치시간에 컵라면을 일주일에 한~두 번 먹었다.</p>
교통	나는 홈스테이 집에서 버스를 타고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좀 더 걸어서 학교에 도착한다. 하지만 교통편이 한국의 교통보다 더 직선형이고 혼잡하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많은 볼거리들이 널려 있는 밴

	<p>쿠버의 시내인 Waterfront역까지는 스카이 트레인을 타면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모두가 COMPASS CARD라는 교통카드를 쓰는데, 한 달권이라서 몇 번 탔는지 상관없이 그 달 동안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구역이 밴쿠버는 1 Zone, 밴쿠버+버나비+리치몬드는 2 Zone으로 교통카드는 자신이 살고 있는 홈스테이 구역에 따라 1 Zone이나 2 Zone 카드를 지급받는다. 나는 리치몬드에 살았기 때문에 2 Zone카드를 지급받았다. 또한 만약에 카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내가 잃어버렸었다) 보증금 6달러를 학교의 홈스테이 오피스에 내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에서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알려준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2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유심	약 50,000원	
기타 사비 (식비, 쇼핑 비용, 입장료)	약 800,000원	
합계	약 20,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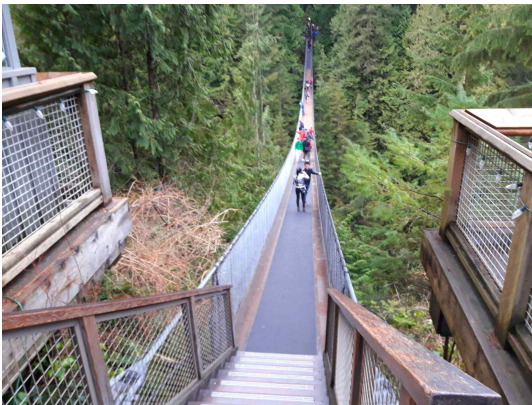
5. 출국 전 준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간이 아닌 3주이기 때문에 포켓와이파이보다 유심을 사는 게 낫다. - 홈스테이 가족에게 줄 선물 한 가지 정도는 챙겨가도 좋을 것이다. (내 경우, 모던한 디자인의 스텐리스 수저세트와 자개손거울을 선물했는데 엄청 좋아하셨다.) - 한국에서 익숙하지 않은 팁 문화에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 Tax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면 좋겠다. 보이는 가격 그대로가 아니라 결제하면 더 붙어서 나오는데 당황하지 않도록! - 컵라면과 햇반이 그리울 것이므로 4~5개정도 싸 가면 좋을 것이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3주 동안 캐나다에서 보낸 것은 올 방학의 최고 잘한 일이다. 일주일 이내의 여행이 아니라 3주의 단기어학연수였던 만큼 확실히 달랐다. 영어로 수업도 하고, 생활 내내 무언가가 필요할 때 묻고 싶을 때 영어로 말을 걸었어야 했고, 내가 머무는 집도 한국인 하나 없는 캐나다 가정집이니 소통을 위해 영어는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처음엔 영어로 말 걸기 참 무서웠던 건 사실이다. 못 알아들을까봐. 내가 중간에 말이 막힐까봐. 하지만 홈스테이 가족들도, 레스토랑 직원들도 우리가 버벅거릴 때마다 친절하게 다시 물어봐주었고 기다려주셨다. 그래서 나도 썩 좋지 못한 실력이지만 온갖 번역기와 사전을 사용하며 노력하다보니 스스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추천해달라고 물어보는 것도, 스스로가 없어지게 되었다. 물론, 엄청난 실력을 얻었다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지만 전보다 발전한 것에 만족스럽다. 또한 함께 간 15명의 친구와 언니 오빠를 만난 것이 그 다음으로 너무 좋았다. 이들이 지나자 모두가 친해졌고 하고 후 매일 매일을 놀러 다녔다. 마지막 3주째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정도로 후회 없이 논 것 같다. 또한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다. 그 중 한 명이 이번 학기에 순천향대학교로 온다고 한다. 캐나다에서 받은 도움을 한국에서 도와주며 갚아주고 싶다! 이렇게 소중한 인연까지 이번 캐나다 3주 단기어학연수에서 얻은 것이 정말 많다. 또한 외국에서 지내보는 것이 이렇게 새롭고 재밌고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던 것을 겪어보니 한국은 얼마나 우물 안인지를 깨달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곳을 가보고 영어를 더 공부해서 외국인 친구들과도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정말 캐나다 어학연수를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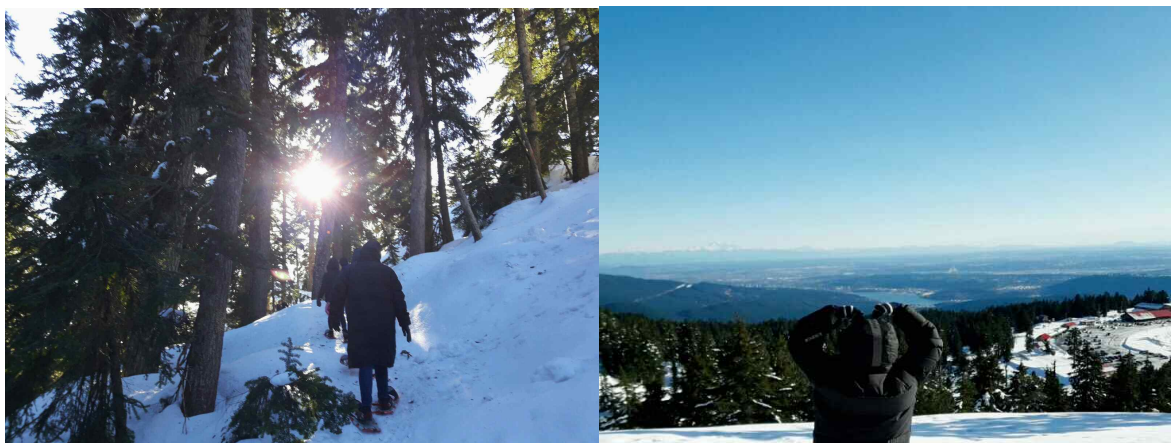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Capilano Suspension Bridge



Langara 학생들과의 meeting



Snow Sho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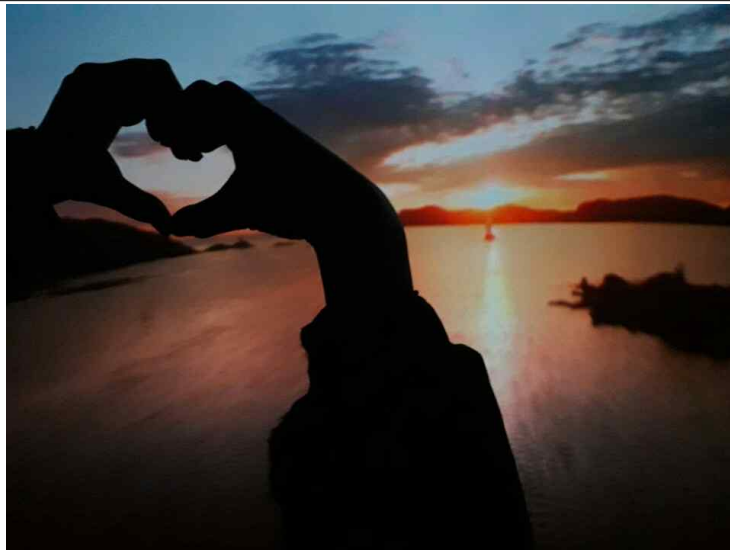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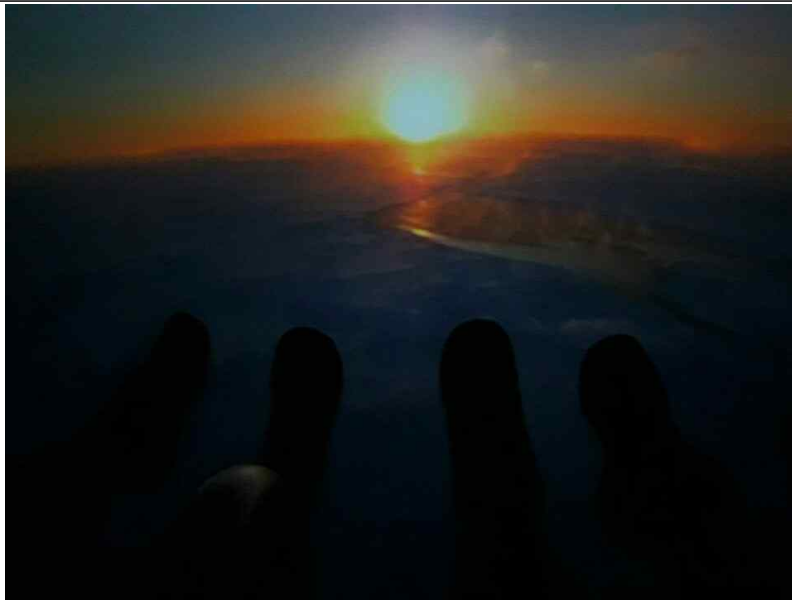
Stanley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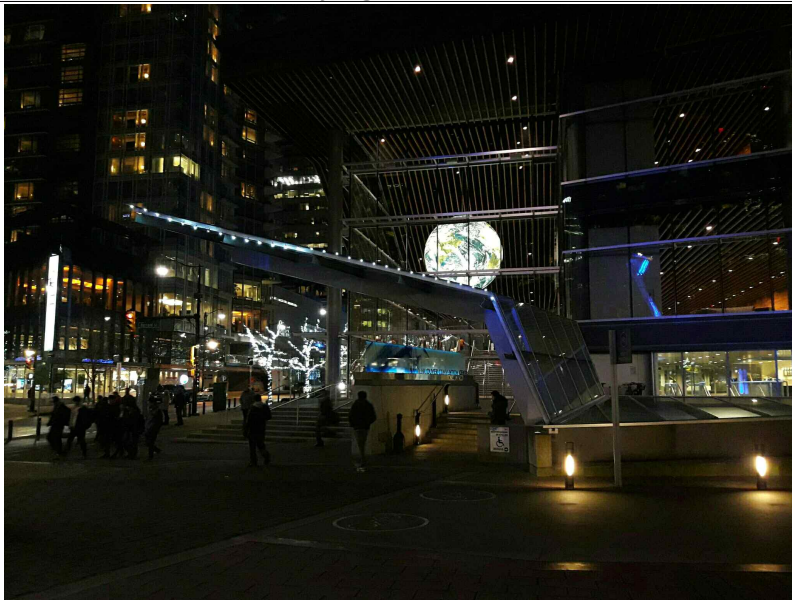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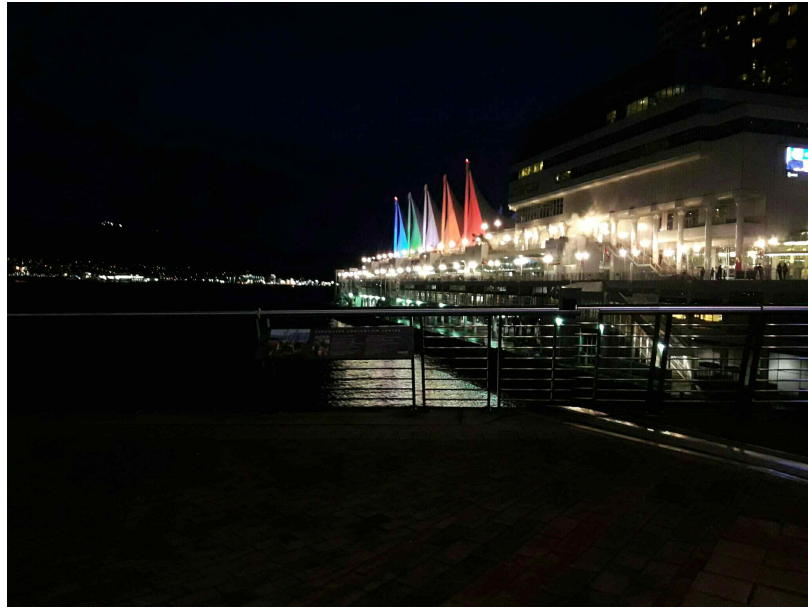
Grouse Mountain - Snow Sliding





Flying Over 4D





밤에 본 Canada Place





Victoria